

##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흰 보좌 심판!(8)

- 읽을 말씀 계 20:1-10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절대 진리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 사이에 천년왕국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4) 천년왕국이 존재할 필요가 있나?

① 다니엘의 예언대로 세상 나라를 성도들이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7장에서 재림과 그때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대해 예언했습니다(13-14, 27). 특히 27절은 새 하늘과 새 땅과 겹치기는 하지만 단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할 네 제국에 대해서 말한 후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천년왕국은 필요한 것입니다.

② 천년왕국에 관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다.

스가라는 이방 나라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 것과 오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슌 14:16-21). 또한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21)"**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들은 재림 후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없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면 스가라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 별을 받는다는 것은 더욱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교회시대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울리지 않고 오직 천년왕국에만 어울립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

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③ 천년왕국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다.

이사야 65장 20-22절 “...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는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전에 이사야는 천년왕국에 대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사 11:6-9)”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5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없다면 이 예언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여도 사람이 나무처럼 오래 사는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교회시대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백 세가 못 되어 죽는다든지, 저주를 받는다든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무처럼 오래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에만 맞는 예언이므로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④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영광으로 마무리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구의 역사가 대환난으로 끝난다면 악의 승리처럼 보이고 너무 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은 승리입니다. 아마겟돈전쟁을 통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군대를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케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은 더욱 그러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고작 3년 반 동안 지구를 다스렸지만 예수님은 천 년 동안이나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마귀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년왕국이 필요한 이유는, 지구가 대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의 구속을 통해 천년왕국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시간세계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무대로 펼쳐지는 시간세계의 역사를 천년왕국이라는 멋진 피날레로 장식하여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 ⑤ 전체 새로운 피조물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 즉 교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은 단지 구상한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손수 빚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얻기 위해 우주 역사상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늘이나 땅에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계도 생명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인 인간의 구원은 단지 거듭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몸까지 새롭게 되어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재림 때는 구원 받은 사람들의 몸이 모두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방인 중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년왕국 시대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완성될까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입니다. 그때 천년왕국 백성들의 몸은 변화되어 아담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됩니다(요일 3:1-2).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휴거한 사람들과 천년왕국 후 변화될 천년왕국의 백성들에게 에덴의 회복 그 이상의 것,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했더라도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되기까지 천년왕국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0절 말씀을 보면 “천 년”이라는 말이 여섯 번이나 나옴

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년왕국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또 용이 무저갱에 갇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 노릇 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마귀를 불못에 던집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구체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상징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것이 교회시대에 대한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계시록에 나오는 “한 때 두 때 반 때” 를 교회시대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70이레를 바르게 해석하면 “한 때 두 때 반 때” 는 대환난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 치하의 대환난 때 순교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므로 명백히 재림 이후를 뜻합니다. 또, 마귀를 불못에 던질 때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 장에 보면 재림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 명백히 재림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이 재림 이전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주장하면 시제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십분 양보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 를 교회시대로 보더라도 앞에서 거론한 ‘순교자’ (계 20:4)와 ‘적그리스도’ (계 20:10)에 대한 말씀들에 의하면 천년 왕국은 재림한 후 즉 교회시대 후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시대 후의 천 년을 어떻게 교회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그들의 해석은 모순이고 억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심을 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년왕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 나눔과 적용

천지창조, 타락, 구속, 교회시대, 대환난 그리고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전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신 단 한 가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한 가지도 하나님이신지 돌아보고, 예수님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신 크신 사랑 앞에 어떠한 마음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나누어 봅시다.